대두유 · 대두박산업“ 위기"

인디아 · 중국 · 남미산 수입 증가 … 덤핑관세 부과 신청

국내 대두유 · 대두박 시장이 인디아, 중국산 수입품의 증가로 인해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지고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입자유화로 인해 사료용 대두박의 수요가 미미한 인디아, 중국, 남미 등에서 저가의 대두박이 수입되면서 이와 연관된 대두유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과다한 재고가 발생하고 원가이하로 판매하는 등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두가공산업은 미국으로부터 원료인 대두를 수입해 식용대두유와 사료용 대두박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으로 산업의 특성상 적정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 대두 100톤 가동시 대두유 17톤과 대두박 79톤의 비율로 생산돼 양제품은 수요가 많은 한쪽을 생산하기 위해 다른 한쪽이 과잉생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두유의 국내 수요는 18만1000톤으로 92년 18만2293톤에 비해 1% 감소했다. 이중 내수가 17만4187톤으로 96%, 수입은 6813톤으로 4%를 점유하고 있다.

대두유 · 대두박 수요현황 (단위 : M/T, %)

구 분		1991		1992		1993	
		수 량	점유율	수 량	점유율	수 량	점유율
대두유	내 수	128,332	70	169,170	93	174,187	96
	수 입	10,302	30	56,410	7	6,813	4
합 계		184,742	100	182,293	100	181,000	100
대두박	내 수	719,151	59	839,871	57	638,123	48
	수 입	496,750	41	672,016	43	667,897	52
합 계		1, 215,901	100	1,511,887	100	1,306,020	100

대두박의 수요는 130만6020톤으로 92년 151만1887톤에 비해 17% 감소했으며, 내수가 63만8123톤으로 48%, 수입은 66만7897톤으로 52%를 차지해 수입량이 국내생산을 넘어서는 등 양제품 사이에 불균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대두박의 국내생산은 78만톤으로 92년 110만9759톤에 비해 22%나 하락했으며 가동률에 있어서도 92년 72.7%에서 93년 57%로 15.7%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대두박 가격은 국산이 KG당 210원, 동남아산이 205원, 남미산이 203원으로 조사됐으며, 대두유는 국산이 561원, 동남아산 503원, 남미산 495원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대두박은 구입급증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없는 반면, 국내 대두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대두박의 생산은 불가피해 앞으로 대두박의 과잉과 채산성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수입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동방유량, 제일제당, 삼양유지사료 등 3개사로 구성된 한국대두가공협회를 통해 무역위원회에 덤핑관세 부과신청을 했다. 이 결과 무역위원회는 대두박의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으며 대두유는 91년이후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업피해 조사를 하지않기로 결정했다.
이에대해 국내 대두가공업계는 어느 한 품목에 대해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두산업의 특성상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 수입할당관세가 종료되는 7월이후 대두유의 수입이 증가하는 시점에 덤핑재심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6/6>